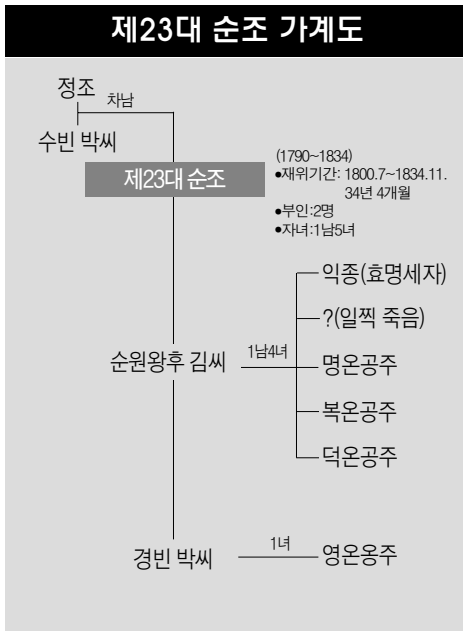


# 민생 살피지 못한 순조 대부터 '조선' 침몰 시작되

## 55 제23대 순조와 순원왕후

순조 1790년~1834년(44세)  
재위 34년 4개월  
1800년 7월(11세)~1834년 11월(45세)



부와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다. 수명 또한 그렇다. 조선 왕조의 역사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두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천재 임금 정조는 아홉수를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승하했다. 자식복도 없어 효의왕후는 아예 석녀이고 후궁 의빈 성씨가 낳은 맏아들 문효세자는 5세에 요절했다. 노심초사 끝에 정조가 38세에 후궁 수빈 박씨에게서 얻은 둘째가 순조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지 5일 만에 열한 살, 순조가 즉위한다. 세상이 바뀌고 양지와 음식이 바뀌고 역사의 물줄기가 침몰하는 시점이다. 세도정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활개 치는 시점이기도 하다.

순조가 태어나는 순간은 화려하다. <정조실록>에는 “이날 새벽에 금림(禁林)에는 붉은 광채가 있어 땅에 내리비쳤고 해가 한낮이 되자 무지개가 태묘(太廟)의 우물 속에서 일어나 오색광채를 이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불과 11세 어린애가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가 득세하고 남인을 치기 위한 천주교 박해(신유박해) 등이 벌어져 정조가 물려준 꿈은 흔들렸다.

순조가 15세 때 본격 친정에 나서지만 장인인 김조순 일가가 실권을 잡으며 국정 운영은 계속된다. 소위 안동 김씨 세도정치다. 세도(世道)란 본래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뜻으로 세종조 때 조광조 등 사람들이 표방했던 통치 원리였다. 그것이 정조 조에 세도의 책임을 부여받은 흥국영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독재를 자행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돼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나 외척들이 독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말로 변질했다.

세도정치의 대명사가 된 안동 김씨에 대한 약간의 오해도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들어서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란 광고판이 곳곳에 서 있다. 조선 후기 세도가 안동 김씨는 안동을 본으로 하는 족벌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서울 자하동과 청풍계 일대에 대대로 거주했던 노론 명가를 뜻한다. 자하동이 장동(莊洞)이 됐고 세도정치를 펼쳤던 이들은 장동에 살던 장동 김씨를 지칭한다. 권위 편찬을 받는 안동에 사는 안동 김씨는 억울함을 풀기 바란다.

정치 기강은 문란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결국 1811년 홍경래의 난이 터졌다. 몰락 양반에서부터 농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던 이 난은 이치 왕조를 부정하는 반체제적 성격이었다. 이들에 관군이 진압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



순조 인릉 봉분 쪽으로 휘어진 소나무.

이라 조정 여론을 장악하지 못해 결국 간택은 유호하게 작용했다.

순원왕후는 아버지 김조순, 오라비 김좌근으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 집권의 중심축이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몸을 던진 여인이다. 지어비 순조와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인릉 곁에 있는 현릉에 묻힌 태종만공 원이 있었다면 외척의 발호를 막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장인과 처남 네 명을 사정없이 처단했다.

순조와의 사이에서 1남 4녀를 두었지만 외아들 효명세자는 아들 하나 낳고 22세에 죽었다. 이들이 보위를 잇지 못하고 손자가 왕위를 이으니, 24대 현종이다. 현종은 자식 없이 23세에 승하했다. 순원왕후 친정은 가문의 영광을 누렸지만 자신은 대가 끊겨버렸다. 오후, 통재라! 누구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할 것인가?

순원왕후는 대왕대비 시절, 머느리 조대비의 풍양 조씨 일문이 미처 손을 쓰기 전에 사도세자의 증손자인 강화도령 원범이(원종)를 지목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 천등발거숭이 원범이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데 그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나라꼴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우나 고우나 한 이불 속에 잠들고 있으니 없는 정일광정 만들어가시라. 영혼이 잠시 나와 쉬는 혼유석도 한 개 뿐이다. 거기서도 서로 부둥켜안고 노는 수밖에 없다. 밀치고 외면하던 돌 밖으로 굴러 떨어진다. 이런 의도로 한 개를 설치했을까. 왕권이 허약하니 대중 때운 것이라라. 순조(純祖), 순원왕후(純元王后)시여, 그 이름만큼만 너그럽고 유하게 지내시길. 원(원)은 푸시고 정(情)만 가을 잔디처럼 새록새록 푸르러지길 서원하나이다.

글:이우성(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석호의 수염이 유난히 길다.

## 본격 세도정치 시조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가문 위해 몸 던져 11세 즉위한 순조 기근·전염병·민란으로 130여만 백성 잃어

를 가속화시킨 분수령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방시인 김삿갓이 등장했다.

순조는 이 밖에도 유례없는 기근과 수재, 전염병, 크고 작은 민란과 역사사건에 시달렸다.

전염병으로 10만여 명이란 엄청난 백성이 죽고 재위 34년 중 19년간 수해가 닥쳤다. 순조 14년까지 조선의 인구는 증가 추세여서 총 790여만 명이였다. 순조 16년 통계 조사에는 659만여 명이다. 130여만 명이나 감소했다. 엄청난 숫자다. 당시 한성부(서울) 인구는 20여만 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130여만 명 백성을 잃은 군주, 억조창생을 지켜주지 못한 왕이 순조다. 참고로 조선초 태종 때 조선의 인구는 320만 2000여 명, 임진왜란 전 인구는 370여만 명, 임란과 병란을 겪은 후 조선의 인구는 150여만 명이였다.

물론, 호구수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당시의 실제 인구수를 추정하기는 어렵

다.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를 한 토니 미셸(Tony Michell)은 조선후기에 보고된 호의 총수는 일반적으로 약 50% 정도 축소된 수치였고, 기록된 호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구원의 약 23% 정도가 호적에 누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인구 감소는 명백한 사실이다.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군주, 쇠락의 문턱으로 정신없이 내몰린 군주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다.

순조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폐단을 막아보고자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다. 그러나 풍양 조씨의 득세로 이어질 뻔이었다. 개 피하러다 뺨 만난 격이다. 아니 둘 다 피하지 못했다. 두 가문은 득세를 위한 싸움에만 몰두했다. 선정, 민생은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었다. 학문을 즐긴 순조는 문집 <순재고>를 남겼다. <양현전심록> <대학유의> <만기요람> 등 학문

과 과정에 다양한 저서도 간행하게 했다.

인릉은 합장릉이다. 생전에 금슬이 어땠던지 간에 영원히 한 이불 속에서 지내야 한다. 함께 묻힌 순원왕후는 이슬아 슬하게 왕비가 됐다. 눈앞까지 왔던 금메달을 날려버릴 지경에 웅케 뉘아채어 목에 걸었다.

순원왕후는 본격적 세도정치의 시조인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딸이다. 1800년(정조24)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간택을 앞두고 갑자기 정조가 승하했다. 1차, 2차 시험에 통과하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심사위원장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살아온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대비마마가 됐다. 할머니뻘인 대비와 정조는 오랜 앙숙이다. 정조가 죽자 대비의 세상이 됐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외척인 김관주와 권유 등을 시켜서 간택을 무효화시키고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막 읍지에서 양지로 나온 터

### 인릉(仁陵)

제23대 순조와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 김씨의 능이다. 1834년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 34년 만에 승하하자 처음 파주 장릉(長陵: 16대 인조 능) 곁에 능을 조성했다가, 풍수상 불길하다는 의문이 대두돼 1856년(철종7) 현릉(顯陵: 태종의 능) 오른쪽 언덕(右岡)으로 이장했다. 다음해에 왕비 순원왕후가 승하해 순조와 합장했다.

합장릉이라 외형상 단릉처럼 보인다. 봉분은 물론 봉분 앞 혼유석도 하나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장명등은 영릉(英陵: 세종의 능)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무문인석의 조각은 사실주의적인 것으로 머리가 어깨 위로 나오고 하반신이 더 길어져서 매우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다. 순조와 순원왕후는 1899년(광무3) 11월 17일에 수축제, 수축후로 추존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산 13의 1. 현릉과 함께 현인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4호. 면적 119만 3071㎡ (36만904평)

### 한글 경용 불교상용의식집

경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경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경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문'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장하는 청사(2층은 한문, 1층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경전 공부와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동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불서총판 운주사 / 범우당 및 전국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청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임신 및 출산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용 유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명 호명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

###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 호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순선씨)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www.durianshop.com

043-647-2378, 011-467-1472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예뵈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상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